

# 지역노동시장에서 청년 대학 졸업자의 노동저활용 요인 : 다층로지스틱모형의 응용\*

## Determinants of Labor Underutilization of College Graduate Youth in Local Labor Markets: A Multilevel Logistic Modeling Approach

이영경 Lee Youngkyeong\*\*, 최예슬 Choi Ye Seul\*\*\*, 김찬용 Kim Chanyong\*\*\*\*, 임업 Lim 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n labor underutilization of college graduate youth in the local labor markets in Korea by employing a multilevel logistic model. We focus on the labor underutilization of college graduate youth aged between 20 to 34 and use local labor market areas (LLMAs) as spatial units of analysis. There have been a plethora of research to raise the need to account for not only those people who are traditionally unemployed, but also individuals who are underemployed and those who are hidden-unemployed worker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n labor underutilization of college graduate youth in the local labor markets in Korea, this study applies a broad employability framework to an understanding of labor underutilization which leads to the risk of underutilization as a function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 impact of local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The multilevel logistic analysis finds that the labor underutilization of college graduate youth is associated with a range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circumstances together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labor markets in Korea. These result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olicies for not only individual level such as providing occupational training or information about employment but also local labor market level like creating regional jobs to reduce the labor underutilization of college graduate youth.

Keywords: College Graduate Youth, Labor Underutilization, Local Labor Market, Multilevel Logistic Model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만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2%로 지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통계청 2016). 이와 같은 수치는 같은 해 일본의 청년실업률 5.0%와 비교하였을 때 두 배 가까이 높으며, 청년층의 고용 둔화를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독일의 7.1%와 비교하

\* 이 논문은 국토교통부의 U-City 석박사과정 지원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제1저자) | Ph.D. Candidate, Dept. of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Yonsei Univ. | Primary Author | y.k.lee@yonsei.ac.kr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Ph.D. Candidate, Dept. of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Yonsei Univ. | yeseul.choi@yonsei.ac.kr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Ph.D. Candidate, Dept. of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Yonsei Univ. | chanyongkim@yonsei.ac.kr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교신저자) | Prof., Dept. of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Yonsei Univ. | Corresponding Author | uplim@yonsei.ac.kr

였을 때에도 상당히 높다. 특히 청년 대학 졸업자(이하 '청년 대졸자')가 직면하는 취업난의 정도는 청년 고등학교 졸업자(이하 '청년 고졸자')보다 더욱 심각하다. 청년 대졸자의 실업률은 2015년 기준 9.6%로 2005년 6.2%였던 과거의 실업률보다 심화되었으며, 2015년 청년 고졸자의 실업률 8.9%보다도 높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 청년 대부분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력은 생산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sup>1)</sup> 최근 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은 높은 대학 진학률과 입대 등의 국가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청년 기준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있다.

청년 대졸자의 실업률과 관련한 또 다른 논의는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인구 중 일부가 실업률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공식 실업률 통계가 노동저활용(labor underutilization)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하고 있음에 기인한다(황수경 2010; 박기현 2012). 공식 실업률 통계는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맞물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안전취업자(underemployment worker), 잠재실업자(hidden unemployment worker)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식 실업률 통계가 보여주는 청년 대졸자들의 고용 사정은 실제 그들의 고용 사정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일부 실증연구는 한국의 체감 청년실업률이 9.2%를 넘어 20~3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이준협, 최성근, 김동빈 2011). 청년 대졸자들이 다른 연령과 학력을 가진 취업희망자들보다 더욱 심화된 취업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공식 실업률 통계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 대졸자의 규모 역시 과소 추정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해외 연구들에서는 노

동저활용척도(measure of labor underutilization)를 사용함으로써, 공식 실업척도(official measure of unemployment)를 통해 포착되지 않던 노동력 활용의 수준을 보다 엄밀하게 측정하고자 시도하고 있다(ILO 2013). 노동저활용이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에 더하여 불안전취업 및 잠재실업의 상태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의 불일치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청년 대졸자가 노동시장에서 직면한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최근에는 국내 연구에서도 노동저활용을 측정하기 위한 고용보조지표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시작되고 있으나(박강우, 이상우 2013; 김현학, 황광명 2014; 통계청 2016) 아직은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 못하며, 이와 관련한 학술적 연구 역시 협소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노동저활용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노동저활용의 해소를 위한 이론적·정책적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는 연령, 가구주 여부, 학교 유형, 전공계열 등 개인적 요인이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이 개인 수준의 특성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년 대졸자의 고용은 고용률이나 양질의 일자리 비율과 같은 지역노동시장 수준의 요인들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Baum, Bill and Mitchell 2008; 이성균 2015). 특히 지역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 간 불균형은 청년 대졸자의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을 낮춰 노동저활용에 속할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McQuaid, Green and Danson 2005).

1)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대졸자는 청년의 대부분인 68%를 차지함. 이는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임(OECD 2015).

## 2.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지역노동시장권(local labor market areas)을 분석의 공간적 단위로 하여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 및 지역 노동시장 수준의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에는 개인 수준에서 형성된 구직 여건과 지역노동시장 수준에서 존재하는 구인 여건이 함께 영향을 미치므로, 서로 다른 층위의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 같은 다층적 구조를 가진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층로지스틱모형(Multilevel Logistic Model)을 응용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개인 수준의 자료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자료를 사용하며, 지역노동시장권 수준의 자료는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Regional Employment Survey: RES)’ 원시자료 및 ‘경제활동인구조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자료를 사용한다. 특히 지역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하는 ‘2012 한국 직업사전(Korea Dictionary of Occupations)’과 RES 원시자료를 매칭하여 사용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에 관한 논의

#### 1) 공식 실업척도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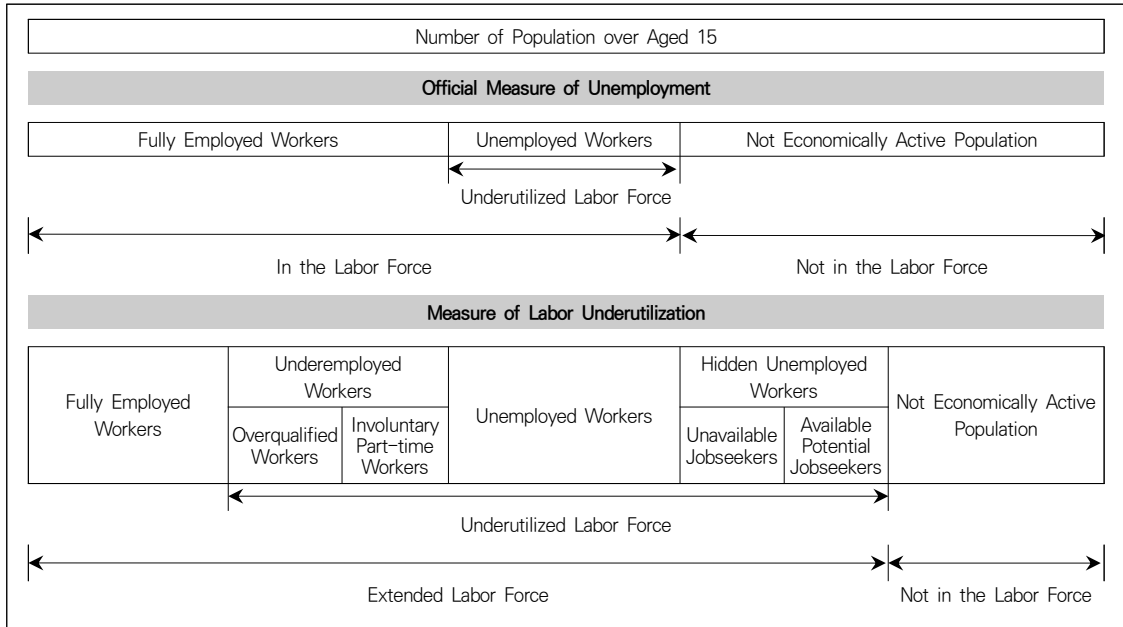
저활용된 노동력(underutilized labor force)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준은 공식 실업척도다. 공식 실업척도는 실업자를 저활용된 노동력으로

간주하며, ‘지난 1주일간 일을 하지 않았고’, ‘일자리가 있다면 일을 할 수 있었으며’,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사람을 실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노동력을 저활용하는 상태로 실업을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실 노동시장 내에는 실업자 외에도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일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편의점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근로자’들과 ‘취업학원에 다니는 취업준비생’들은 실업자로 분류되고 있지 않으나 자신의 노동력을 더 활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실업척도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취업 상태와 비경제활동 상태로 분류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공식 실업척도를 개인의 노동활동 상황 및 지역노동시장의 고용 사정 변동을 실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고용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황수경 2010; 박기현 2012).

#### 2) 노동저활용의 정의 및 측정

저활용된 노동력의 범위는 어떠한 척도를 적용하여 측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igure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식 실업척도는 실업자(unemployed workers)만을 저활용된 노동력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은 충족되지 않은 취업 욕구를 가진 인구를 수치화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이 같은 관점에서 노동저활용의 개념을 활용한 척도를 통해 저활용된 노동력을 구분하는 것은, 실업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노동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모든 사람들을 저활용된 노동력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황수경 2011; 정현상 2014). 노동저활용의 개념은 저활용된 노동력을 측정하는 데

Figure 1 \_ Definition of Labor Underutilization



Source: Adapted from Hwang 2011; ILO 2013.

지나치게 엄격하였던 실업자 판단 기준을 보완하는 개념으로서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실업 상태뿐만 아니라 불완전취업과 잠재실업의 상태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정현상 2014).

불완전취업자는 자신이 가진 학력 및 능력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overqualified worker)와 비록 현재는 시간제 일자리에 근무하지만 노동시간을 늘려 자신의 노동력을 더 활용하고자 하는 근로자(involuntary part-time worker)를 포함한다. 잠재 실업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이 주어져도 즉시 취업할 수 없는 구직희망자(unavailable jobseeker)와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할 수 있는 구직희망자(available potential jobseeker)를 포함한다(Mitchell and Carsolon 2000; Baum, Bill and Mitchell 2008; 김준 2014).

최근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저활용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실업자 판단 기준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보완된 기준에 바탕을 둔 고용통계를 제공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ILO 2013). 하지만 한국의 관련 연구들은 여전히 노동저활용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국내에서 제공하는 노동저활용과 관련된 통계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 3)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

청년 대졸자가 겪는 취업난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대졸자 개인 외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다(송부용, 김영순, 김기영 2011). 개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청년 대졸자에게 제공되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은 청년 대졸자들의 소득, 사회적 지위, 행복감 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송부용, 김영순, 김기영 2011). 청년 대졸자는 직장 탐색을 최초로 수행하는 시기에 있다. 따라서 청

년 대졸자들이 취업 실패로 인해 노동저활용 상태에 속하는 것은 노동시장 적응 과정에서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으며, 그들이 사회에서 배제될 위험성을 내포한다(지광수 2005). 지역노동시장 차원에서 해석하였을 때, 청년 대졸자들이 노동저활용 상태에 있다는 것은 고학력 노동력을 지역노동시장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노동저활용은 지역의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김을식, 김군수, 김태경, 김점산 외 2012).

청년 대졸자들의 고용둔화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는 개인 수준과 지역노동시장 수준에서 청년고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청년 대졸자들을 노동저활용척도를 활용하여 엄밀히 구분하고, 청년 대졸자들이 노동저활용 상태에 속하게 되는 원인을 연구하는 것은 청년 대졸자들의 구직문제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강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청년 대졸자들의 취업난에 주목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공식 실업척도를 사용하여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채구목 2004; 김용성 2012). 이 경우 사실상 청년고용 정책의 관심 대상이 되어야 할 불완전 취업이나 잠재 실업 상태의 청년 대졸자들은 분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청년 대졸자의 고용 상황 및 구직문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2.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근 연구들은 노동저활용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고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McQuaid, Green and Danson 2005; McQuaid and

Lindsay 2005). 개인이 가진 낮은 고용 가능성은 그들의 노동저활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개인의 고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도 고려할 수 있다. 개인의 고용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노동 공급의 주체인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노동 수요의 주체인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1) 개인 수준 요인

노동저활용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노동경제학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이 지닌 공통적인 특성은 노동저활용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 있어 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Wooden 1993; Galster and Killen 1995; Smith 2010; Sum and Khatiwada 2010). 이들은 대체로 일자리를 찾는 이론(job searching theory)과 인적 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취업희망자가 취업에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탐구하고 있다(김용성 2012).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수준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다. 개인의 고유한 특성인 성별과 연령은 청년 대졸자가 노동력 활용 정도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Wooden 1993). 관련 연구들은 여성이며 연령이 낮은 사람이 노동저활용 상태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음을 주장하였다(Baum, Bill and Mitchell 2008; 박환보, 김성식 2011). 이와 함께 청년 대졸자가 가진 직업 경험, 직업 훈련 경험, 어학 능력, 숙련 특성 등을 포함하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 특성 역시 그들의 노동저활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ecker(2009)의 인적 자본 이론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 특성

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고용 가능성을 가지므로 노동저활용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작다. 실제 청년 대졸자가 노동저활용되는 원인을 분석한 국내 연구들은, 직업훈련 경험 혹은 어학연수 경험을 보유한 청년 대졸자들은 그들이 지닌 높은 인적 자본 수준을 바탕으로 노동저활용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최소화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박환보 2011; 이상호 2012). 이와 더불어 이상호(2012)는 청년 대졸자들이 지닌 전공 분야에 따라 그들의 노동력 활용 정도는 다르게 나타남을 실증하고 있다.

이 같은 기본적인 특성 외에도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 지속기간과 졸업 대학의 소재지는 낙인효과(scarring effect)를 통해 노동저활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구인의 주체가 되는 기업주들은 미취업 기간이 긴 구직자일수록 생산성이 낮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강순희, 안준기 2010). 그러므로 개인의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들의 고용 가능성은 저평가되며, 향후 구직 과정에서 부정적 효과를 내포하게 되어 노동저활용 상태에서 탈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Nunley, Pugh, Romero and Seals 2014). 대표적으로 Heckman and Borjas(1980)는 현재의 실업기간 또는 실업확률은 시차 기간 의존성(lagged duration dependence)에 의해 과거의 실업 기간에 의존한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 역시 사회적 낙인효과에 의해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호(2012)의 연구에 따르면, 학벌사회로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취업시장에서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들의 졸업 대학의 소재지는 불합리한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하여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인 형태의 노동저활용에는 결혼

여부, 자녀 여부, 부모부양 여부, 가구주 여부와 같은 개인 배경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 개인은 자신의 노동력 활용 정도를 결정할 때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기 때문이다(Case and Katz 1991). Baum, Bill and Mitchell(2008)은 부양해야 하는 자녀 또는 부모가 있거나 가구주로서 경제적 책임이 자신에게 부여된 개인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동저활용 상태에 놓이기보다는 완전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 2) 지역노동시장 수준 요인

개인 수준의 요인들에 국한하여 노동저활용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그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Abraham and Wachter 1987; Holzer 1991; Jonas 1996; Flynn, 2003; McQuaid and Lindsay 2005; Helms and Cumbers 2006). 이들의 핵심 주장은 커뮤니티, 근린, 지역노동시장의 환경이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노동저활용에 미치는 영향과 그 메커니즘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은 각자 거주하고 근무하는 환경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개인이 가진 특성은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노동시장 특성은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가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 수준과 지역노동시장 수준의 요인들은 개인이 체감하는 고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Galster and Killen 1995; McQuaid and Lindsay 2005).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노동시장 요인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개인이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job opportunity)가 공간적으로 특정 범위 내에서 제약됨에 주목한다

(Hanson and Pratt 1992; Van Ham, Mulder and Hooimeijer 2000). 개인이 소속된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규모, 산업구성, 고용률, 실업률과 같은 요인들은 지역노동시장 내에서의 구인·구직 경쟁환경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개인의 고용 가능성 및 고용 기회를 결정한다(McQuaid and Lindsay 2005; Jauhainen 2006; Khattab 2006; McGuinness 2006).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각 지역노동시장의 상이한 고용기회는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노동저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um, Bill and Mitchell 2008).

한편, 개인이 원하는 직종이나 직무, 지위에서의 노동 수요가 거주하는 지역 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이 체감하는 고용 기회가 공간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어떠한 개인이 소속된 지역 노동시장 내에 많은 일자리가 존재하지만 그 일자리가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노동시장에 거주하는 개인의 고용 가능성은 크게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Houston 2005). 이렇듯 구조적으로 지역노동시장 수준에서 존재하는 구인·구직의 공간적 불일치(spatial mismatch)는 대개 노동 수요 자급률(labor supply self-containment ratio)과 같은 지표를 통해 측정되고 있다(이상호 2008).

더불어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지역노동시장 수준의 요인으로는 고학력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 능력이 고려될 수 있다. 노동저활용의 이슈는 지속적으로 지역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노동 공급에 해당 장소에서의 노동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최근의 논의다(이성균 2015). 그러므로 노동 수요와 공급 간의 국지적 불일치(local mismatch)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노동시장에서의 높은 학력 과잉 비율은 해당 지역 내 구직희망자에게 적은 고용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Simpson 1992; Van Ham, Mulder and Hooimeijer 2000; Bai 2006; Ghignoni 2011). 다시 말해, 고학력자들이 지역노동시장 내에 과잉 공급됨에 따라 노동 공급의 평균 학력 수준이 노동 수요가 요구하는 평균 학력 수준보다 높을 경우에는 청년 대졸자 이 치열한 구직 경쟁에 직면하여 노동저활용 상황에 처할 수 있다(정상훈, 이충언 2008; 이상호 2012; Bunel and Tovar 2014).

### III. 연구방법

#### 1. 연구의 자료

분석모형의 변수를 구축하기 위한 개인 수준의 자료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2010 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2010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2010 GOMS)'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0 GOMS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제공하는 '201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의 조사 대상자 중 2~3년제 대학 이상 고등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들을 모집단으로 한다. 그리고 층화추출방법을 통해 모집단의 약 3~4%(1만 8천 명)를 추출하여 구성한 패널표본에 대해 추적조사를 수행하였다. 2010 GOMS 자료는 다른 조사자료보다 경제활동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설문문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 실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는 본 논문에 매우 적합하다. 특히 본 논문은 2010 GOMS의 2011년과 2013년 조사자료를 함께 사용하였는데, 이는 2010 GOMS 자료가 2011년과 2013년 두 개 연도에 이루어진 추적조사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지역노동시장 수준의 변수를 구성하기 위한 자료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RES 원시자료, 한국고용정보

원에서 제공하는 '2012 한국직업사전,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RES 원시자료를 통해서는 각 시군에 속한 근로자들이 가진 직종 정보를, '2012 한국직업사전'을 통해서는 세분류 직종별 필요 학력 정보를 제공받았다.

## 2. 지역노동시장권의 정의

지역노동시장은 구직활동과 채용활동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적 영역을 의미한다(Goodman 1970). 그러나 행정권역과 지역노동시장의 범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통계청 2007). 예컨대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에서도 근무할 용의가 있다면,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지역노동시장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해 논의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수도권, 비수도권, 시군구, 시도 등으로 분류되는 행정권역을 공간적 분석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권역을 공간적 분석단위로 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할 경우, 분석 결과 값에는 공간단위의 임의성 문제(Modifiable Areal Unit Problem: MAUP)로 인해 발생한 오류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이 가지는 기능적 특성들이 모형에 반영되지 않아 추정치가 과대 혹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이상호 2008).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은 이상호(2008)가 제시한 지역노동시장권(Local Labor Market Areas: LLMAs)을 분석의 공간적 단위로 사용한다. 그는 지역노동시장 특성인 통근율, 자급률, 인구 규모 등을 반영하기 위해 1995년, 2000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상호배제적인 지역노동시장 권역을 설정하였다.

## 3. 주요 변수 설정

이론적 고찰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은 각 개인이 가진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지만 개인이 속한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지역노동시장적 요인을 고려하여 실증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본 논문은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수준 및 지역노동시장 수준의 설명변수들로 실증모형을 구성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 1)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노동저활용 여부변수는 2010 GOMS의 2013년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청년 대졸자가 노동저활용에 속한 경우와 완전취업한 경우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여기서 노동저활용은 공식 실업척도에서 정의하는 실업 상태와 더불어 불완전취업과 잠재실업 상태에 속한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그리고 노동저활용에 속하지 않은 경우는 완전취업한 경우를 의미한다. 2010 GOMS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대졸자가 노동저활용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산정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실업 상태의 대졸자는 GOMS 자료 설문문항 중 '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문항 SQ2)'의 설문항목에 대하여 '구직활동'으로 응답한 표본 중, '지난 4주 이내 구직활동 경험이 있다(문항 SQ7)'와 '지난 1주간 일자리가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다(문항 문57)'라고 응답한 자로 정의하였다. 그다음으로 불완전취업 상태의 대졸자는 문항 SQ2의 설문항목에 대하여 '일하였음'이라고 응답한 표본 중, '전일제 일자

리를 구하지 못한 시간제 근로자(문항 문5-7, 문 5-7-1)' 또는 '전일제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지만 다른 일자리를 탐색 중이다(문항 문5-6, 문5-7)' 또는 '자신의 교육 수준보다 하향 취업하였다(문항 문37)'라고 응답한 자들로 정의하였다. 이는 앞서 문항 SQ2에서 '일하였음'으로 응답한 모든 표본을 완전취업자로 정의하였던 공식 실업척도의 기준과 차별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잠재실업 상태의 대졸자는 문항 SQ2의 설문항목에 대하여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수강' 또는 '취업준비'를 택하였거나, 문항 SQ2에서 '발령대기' 또는 '쉬었음'으로 응답한 표본 중, '지난 4주 내에 구직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문항 SQ7)'와 '지난 주 일자리가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다(문항 58-1)'라고 응답한 자들과,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수행하였다(문항 SQ7)'와 '지난 1주간 일자리가 있어도 일을 할 수 없었다(문항 58-1)'라고 응답한 자들로 정의하였다. 이 역시 공식 실업척도에서 고시생이나 취업 준비생을 모두 비경제활동인구로 정의하였던 것과는 차별되는 것이다.

## 2) 개인 수준 설명변수

개인 수준의 설명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포함하였다. 청년 대졸자 개인이 가진 고유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표본의 성별을 나타내는 *SEX* 변수, 연령을 나타내는 *AGE* 변수, 직업훈련 여부를 나타내는 *TRAIN* 변수, 전공계열 유형을 나타내는 *MAJOR\_TYPE* 변수, 졸업한 학교 유형을 나타내는 *UNIV\_TYPE* 변수, 어학연수 경험 여부를 나타내는 *ABROAD* 변수, 졸업 후 미취업 기간을 나타내는 *UNEMP\_PERIOD* 변수를 추가하였다. 또한 청년 대졸자의 개인 배경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표본의

혼인 여부를 나타내는 *MARRIED* 변수, 자녀의 유무를 나타내는 *CHLDREN* 변수, 부양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나타내는 *PARENTS* 변수, 가구주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H\_HOLD* 변수를 포함하였다. 개인 수준 변수들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와 자료 출처는 <Table 1>에 요약되어 있다.

## 3) 지역노동시장 수준 설명변수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노동시장 수준의 변수로는 *OVEREDU* 변수, *SELF\_CONTAINMENT* 변수, *EMPLOY\_RATE* 변수를 포함하였다.

*OVEREDU* 변수는 표본이 속한 지역노동시장의 학력과잉 비율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지역노동시장 내 대졸 학력 근로자 필요인원( $N$ ) 10명당 초과 공급된 대졸 학력 근무인원( $W-N$ )의 비율로 산정하였다. 각 지역노동시장의 대졸 학력 근무인원( $W$ )은 RES 원시자료를 통해 해당 지역노동시장 내 직종별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근로자수를 측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구하였다. 지역노동시장 내 대졸학력 근로자 필요인원( $N$ )은 '2012 한국직업사전'이 제공하는 직종별 필요학력 정보를 RES 원시자료 표본의 직종에 매칭하여 산정하였다. *SELF\_CONTAINMENT* 변수는 표본이 속한 지역노동시장의 노동 수요 자급률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지역노동시장 내 거주하는 취업자( $E$ ) 10명당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노동시장에 취업한 취업자( $E-O$ )의 비율로 산정하였다. 거주하는 지역노동시장에 취업한 취업자수는 지역노동시장 내 거주하는 취업자수  $E$ 에서 타 지역으로 통근하는 취업자수  $O$ 를 빼고 산정하였다. *EMPLOY\_RATE* 변수는 표본이 속한 지역노동시장의 고용률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지역노동시장 내 만 15세 이상 인구 10명당 취업

Table 1\_ Variables of Individual Level and Local Labor Market Level

Variable	Level 1: Individual Level	
	Operational Definition	Data Source
<i>LU</i>	1 = Labor Underutilization, 0 = Fully Employee	2010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2013)
<i>SEX</i>	1 = Female, 0 = Male	
<i>AGE</i>	Age of College Graduate Youth	
<i>TRAIN</i>	1 = Training Vocational Course, 0 = Otherwise	
<i>ABROAD</i>	1 = Getting Language Training Abroad, 0 = Otherwise	2010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2011)
<i>MAJOR_TYPE</i>	1 =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0 = Arts and Social Science	
<i>UNIV_TYPE</i>	1 = University, 0 = College	
<i>UNEMP_PERIOD</i>	Unemployed Year of College Graduate Youth	2010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2011; 2013)
<i>UNIV_REG</i>	1 = Metropolitan Area, 0 = Otherwise	2010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2011)
<i>MARRIED</i>	1 = Getting Married, 0 = Otherwise	2010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2013)
<i>CHILDREN</i>	1 = Having over 1 children, 0 = Otherwise	
<i>PARENTS</i>	1 = Living Together Parents, 0 = Otherwise	
<i>H_HOLD</i>	1 = Householder, 0 = Otherwise	
Variable	Level 2: Local Labor Market Level	
	Operational Definition	Data Source
<i>OVEREDU</i>	Proportion of Oversupply of Workers who have College Degree or above per 10 Workers Compared to Jobs which must have at least a College Graduate Degree	Regional Employment Survey(2013), Korea Dictionary of Occupations(2012)
<i>SELF_CONTAINMENT</i>	Proportion of Employee per 10 Workers residing in that Local Labor Market	Regional Employment Survey(2013)
<i>EMPLOY_RATE</i>	Proportion of Employee per 10 Population over aged 15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2013)

자의 비율로 산정하였다. 지역노동시장 수준의 변수들을 구성하기 위한 자료의 출처는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분석모형

본 연구의 변수들은 서로 다른 층위의 자료(개인 및 지역노동시장 수준의 자료)를 통해 구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분석을 위해 전통적인 회귀모형을 사용하면 오차항의 독립성에 대한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제2수준(지역노동시장 수준) 변수의 자유도가 과다하게 산정되며, 이로 인해 모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과다 추정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다(강상진 1998). 따라서 본 논문은 두 층위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제2수준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사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이항분포를 가지므로, 본 연구는 다층모형 중에서도 다층로지스틱모형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Hox, Moerbeek and van de Schoot 2010; 김미현 2014). 다층로지스틱모형의 기본 구조는 <Table 2>와 같다.

Table 2\_ Structure of the Multilevel Logistic Model

Category	Equation
Level 1	$\eta_{ij} = \log\left(\frac{\phi_{ij}}{1-\phi_{ij}}\right) = \beta_{0j} + \beta_{qj} \sum_{q=1}^Q X_{qij}$ <p style="text-align: right;">&lt;Equation 1&gt;</p>
Level 2	$\beta_{0j} = \gamma_{00} + \sum_{s=1}^S \gamma_{0s} W_{sj} + u_{0j}$ $\beta_{qj} = \gamma_{q0} + \sum_{s=1}^S \gamma_{qs} W_{sj} + u_{qj}, \quad (q = 1, 2, 3, \dots, 7)$ $\begin{pmatrix} u_{0j} \\ u_{qj} \end{pmatrix} \sim N \begin{pmatrix} \tau_{00}, \tau_{01} \\ \tau_{q0}, \tau_{q1} \end{pmatrix}$ <p style="text-align: right;">&lt;Equation 2&gt;</p>

Source: Raudenbush and Bryk 2002.

<Table 2>의 <Equation 1>은 Q개의 설명변수 ( $X_{ij}$ )로 구성된 제1수준 모형이다.  $\eta_{ij}$ 은 종속변수가 1일 확률의 승산값(log-odds)이며,  $\phi_{ij}$ 은 종속변수가 1일 확률이다. 이때 각 설명변수의 유의효과는 승산비(odds ratio)를 통해 검증되며, 설명변수의 값이 주어졌을 때 종속변수가 1일 확률은 승산(odds)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층로지스틱모형의 제1수준 모형을 구성하는 절편계수( $\beta_{0j}$ )와 기울기계수( $\beta_{qj}$ )는 집단효과를 모형 내에 포함하여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가진다. 따라서 모수 추정에 있어 다층로지스틱모형은 단층로지스틱모형보다 비편향적(unbiased)이고 효율적(efficient)이다(Raudenbush and Bryk 2002). 그러므로 다층로지스틱모형은  $\beta_{0j}$ 와  $\beta_{qj}$ 가 고정효과(fixed effect)임을 가정하기 때문에 집단효과를 반영할 수 없었던 단층로지스틱모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다층로지스틱모형의 제2수준 모형은 선형다층모형의 제2수준 모형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Table 2>의 <Equation 2>는 S개의 설명변수( $W_j$ )로 구성된 제2수준 모형이다. <Equation 2>의  $\gamma_{q0}$ 는 제2수준 모형에서의 절편계수를 나타내며, 이는 집단 수준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gamma_{qs}$ 는 j번째 집단의 제2

수준 회귀계수값들을,  $W_{sj}$ 는 j번째 집단의 s번째 설명변수 값을 의미한다.  $u_{qj}$ 는 제2수준 모형의 오차항이다.

#### IV. 분석 결과

##### 1. 기술통계량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청년 대졸자이므로 표본의 연령대는 만 20~34세로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은 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서 최근 청년들의 입직연령 지연을 감안하여 청년 기준을 만 15~34세 이하로 제시하고 있음에 근거한다. 자료의 전체 표본 중 주요 설명변수에 대해 결측값 혹은 이상치를 보이는 대졸자 표본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기술통계량은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체 표본 중 약 21%가 노동저활용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업 상태의 청년 대졸자 외에도 실제 노동시장에는 불완전취업과 잠재실업 상태의 청년 대졸자들이 다수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같은 결과는 청년 대졸자 중 9.6%가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음을 제시한 통계청의 통계분석

Table 3 \_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Level 1: Individual Level				
	Number	Mean	SD	Minimum	Maximum
<i>LU</i>	12,784	0.214	0.410	0.000	1.000
<i>SEX</i>	12,784	0.441	0.496	0.000	1.000
<i>AGE</i> (year)	12,784	28.385	2.215	20.000	34.000
<i>TRAIN</i>	12,784	0.235	0.424	0.000	1.000
<i>ABROAD</i>	12,784	0.195	0.396	0.000	1.000
<i>MAJOR_TYPE</i>	12,784	0.457	0.498	0.000	1.000
<i>UNIV_TYPE</i>	12,784	0.740	0.439	0.000	1.000
<i>UNEMP_PERIOD</i> (month)	12,784	15.032	17.103	0.000	49.000
<i>UNEMP_PERIOD</i> (year)	12,784	1.253	1.452	0.000	4.083
<i>UNIV_REG</i>	12,784	0.477	0.500	0.000	1.000
<i>MARRIED</i>	12,784	0.163	0.370	0.000	1.000
<i>CHLDREN</i>	12,784	0.069	0.254	0.000	1.000
<i>PARENTS</i>	12,784	0.025	0.158	0.000	1.000
<i>H_HOLD</i>	12,784	0.400	0.490	0.000	1.000
Variable	Level 2: Local Labor Market Level				
	Number	Mean	SD	Minimum	Maximum
<i>OVEREDU</i>	111	3.481	1.572	-0.359	8.435
<i>SELF_CONTAINMENT</i>	111	9.486	0.413	7.853	9.988
<i>EMPLOY_RATE</i>	111	6.353	0.528	5.372	7.616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실업한 청년 대졸자뿐만 아니라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이 20~30%에 달한다는 기존 보고서 및 연구의 내용을 뒷받침한다. 청년 대졸자 표본들의 미취업 기간이 평균 15.03개월이라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결과다. 이는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평균 1년 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활용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지역노동시장 간 특성들이 상이하다는 가정하에 진행되고 있다. 실제 기술통계량은 111개의 지역노동시장이 가지는 학력과잉 비율은 최소 -3.59%부터 84.35%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역노동시장 간 학력과잉 비율의 차이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노동시장들의 노동 수요 자급률 평균이 94.69%로 나타난 것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이상호(2008)의 지역노동시장권이 독립적인 노동시장으로써 분석의 공간적 단위로 적합함을 의미한다.

## 2.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의 원인에 관한 분석 결과

### 1) 기초모형 분석 결과

개인 수준과 지역노동시장 수준의 상수항만을 포함시킨 기초모형의 분석은 노동저활용 여부의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Table 4\_ Multilevel Logistic Results

Fixed effect						
Explanatory Variable	Individual Level					
	Model 1		Model 2		Model 3	
	Coefficient	Odds Ratio	Coefficient	Odds Ratio	Coefficient	Odds Ratio
<i>INTERCEPT</i>	-1.346***	0.260	-1.363***	0.256	-1.507***	0.219
<i>SEX</i>	-	-	0.049**	1.051	0.052**	1.053
<i>AGE</i> (year)	-	-	-0.003	0.998	-0.002	0.999
<i>TRAIN</i>	-	-	-0.009	0.992	-0.069	0.991
<i>ABROAD</i>	-	-	-0.104*	0.902	-0.104*	0.901
<i>MAJOR_TYPE</i>	-	-	-0.141***	0.868	-0.141***	0.868
<i>UNIV_TYPE</i>	-	-	0.043	1.044	0.040	1.041
<i>UNEMP_PERIOD</i> (year)	-	-	0.059***	1.061	0.058***	1.060
<i>UNIV_REG</i>	-	-	-0.080	0.923	-0.081	0.922
<i>MARRIED</i>	-	-	-0.177**	0.838	-0.259**	0.838
<i>CHLDREN</i>	-	-	-0.013	0.987	0.003	0.988
<i>PARENTS</i>	-	-	-0.370**	0.691	-0.418**	0.678
<i>H_HOLD</i>	-	-	-0.449***	0.677	-0.482***	0.617
Explanatory Variable	Local Labor Market Level					
	Model 1		Model 2		Model 3	
	Coefficient	Odds Ratio	Coefficient	Odds Ratio	Coefficient	Odds Ratio
<i>OVEREDU</i>	-	-	-	-	0.084***	1.088
<i>SELF_CONTAINMENT</i>	-	-	-	-	-0.187*	0.830
<i>EMPLOY_RATE</i>	-	-	-	-	-0.121	0.886
Random effect						
Explanatory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Coefficient	Odds Ratio	Coefficient	Odds Ratio	Coefficient	Odds Ratio
$\tau_{00}$	0.018**	-	0.015**	-	0.014***	-

Note: \*\*\* Significant at 1%,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0%.

한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또한 기초모형의 분석 결과는 종속변수의 변이를 설명하는 데 다층적인 수준의 층위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함의도 제공해준다. 분석 결과는 <Table 4>의 모형 1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모형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의효과(random effect,  $\tau_{00}$ )의 변량추정치는 0.018이며, 5%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종속

변수의 변이를 설명하는 데 다층적인 수준의 층위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 2) 연구모형 분석 결과

개인 수준과 지역노동시장 수준의 설명변수들을 기초 모형에 포함시킨 실증모형의 분석 결과는 <Table 4>의 모형 2와 모형 3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형 2는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 수준의 변수만을 추가한 모형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 대졸자의 성별, 전공 계열, 어학연수 여부, 미취업 기간, 혼인 여부, 부양부모 동거 여부, 가구주 여부가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 여성은 남성보다 노동저활용에 속할 확률이 1.0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노동저활용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음을 주장한 Wooden(199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다. 그리고 자연공학계열을 전공한 청년 대졸자는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한 자보다 노동저활용에 속할 확률이 0.88배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 노동시장에서 인문사회계열의 전공자들이 겪는 어려운 취업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어학연수를 받은 청년 대졸자는 그렇지 않은 자보다 노동저활용에 속할 확률이 0.90배였다. 미취업기간이 1년 증가할수록 청년 대졸자가 노동저활용에 속할 확률이 1.0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대졸자가 겪는 실업 기간이 그들의 노동저활용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논의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Nunley, Pugh, Romero and Seals 2014).

이와 더불어 대학 졸업 후 결혼하였거나, 부양해야 할 부모와 동거하거나, 가구주인 청년 대졸자는 노동저활용에 속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청년 대졸자는 그렇지 않은 자보다 노동저활용에 속할 확률이 0.83배였으며, 부양해야 할 부모와 동거하거나 자신이 가구주인 청년 대졸자 역시 그렇지 않은 자와 비교하여 노동저활용에 속할 확률이 각각 0.69배, 0.68배였다. 이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있는 청년 대졸자들은 노동저활용에 속할 확률이 더 낮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경제적 책임이 자신에게 부여된 경

우에는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시간을 가지기 보다는 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다(Baum, Bill and Mitchell 2008).

모형 3은 모형 2에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노동시장 수준의 요인들을 추가한 모형이다. 이는 개인 수준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노동시장 수준의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노동시장이 가진 특성이 노동저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함이다. 모형 3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tau_{00}$ 의 변량추정치는 0.014로 나타나 모형 2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tau_{00}$ 의 변량추정치(0.015)보다 줄어들었으며 5% 유의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노동시장 수준의 설명변수들이 가지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층분석의 적용이 적합함을 보여준다.

모형 3의 분석 결과는 지역노동시장 특성 또한 청년 대졸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구의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청년 대졸자가 가진 다른 요인들이 모두 동일할 때, 학력과잉 비율변수는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에 속할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노동시장 내 대졸 이상 학력을 지닌 근무인원 10명당 노동 수요보다 과잉 공급된 대졸 이상 근로자수가 1명 증가하면 해당 지역노동시장 내에 거주하는 청년 대졸자가 노동저활용에 속할 확률이 1.08배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해당 지역 내 거주자 중 동일 지역 취업 비율을 의미하는 노동 수요 자급률 변수 역시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노동시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업자 10명당 해당 지역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취업자수가 1명 증가하면, 해당 지역노동시장에 거주하는 청년 대졸자가 노동저활용에 속할 확률이 노동저활용에 속하지 않은 확률의 0.82배가 되었다.

## V. 결론 및 시사점

본 논문은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과 지역노동시장 수준의 요인들을 도출하고, 각 요인이 지니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노동저활용의 개념을 토대로 단순 실업뿐만이 아니라 청년 대졸자가 지닌 노동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상태를 엄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공식 실업척도를 통해서는 포착되지 않는 고용의 양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층로 지스틱모형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개인 수준의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노동시장 수준의 요인들이 해당 지역노동시장에 소속된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별, 전공 계열, 혼인 여부, 가구주 여부 등 개인 수준에서 측정되는 인구학적 요인들뿐만이 아니라 각 청년 대졸자가 소속된 지역노동시장의 학력과잉 비율과 노동 수요 자급률 등 지역노동시장 수준의 고용환경 요인들 역시 노동저활용에 대한 중요한 설명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을 다룬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포괄적인 관점에서 노동력 활용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고용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적합하다는 최근 논의들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저활용척도를 사용하여 저활용된 노동력의 상태를 엄밀히 정의하고, 노동저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폭넓게 고찰하였다. 또한 개인의 노동력 활용에는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노동시장의 노동 수요 부족으로 인한 구직 경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개념적 논의를 실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분석적 측면에서 본 논문은 개인과 지역노동

시장이라는 상이한 분석 단위의 다층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층로지스틱모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함의를 가진다. 노동저활용의 이슈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단층모형을 설계하여 분석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단층모형은 개인 수준의 노동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노동시장 수준변수의 효과를 엄밀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된 다층적 구조의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사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논문은 정책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성별, 전공 계열, 미취업 기간, 혼인 여부, 가구주 여부 등의 개인 수준의 요인들뿐만 아니라 지역노동시장의 학력과잉과 노동 수요 자급이 청년 대졸자들의 노동저활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노동저활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업 정보와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개인 수준에서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노동시장 수준의 고용정책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노동시장의 학력 과잉 비율은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지역노동시장의 노동 수요 자급률은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청년 대졸자들의 노동저활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역노동시장 내 일자리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고용정책 보다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용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 거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지역고용정책은 청년 대졸자들이 그들의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논문의 한계는 분석 과정에서 도입한 연구 모형에 포함된 지역노동시장 수준의 설명변수들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구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노동시장 수준에서 구성된 자료를 추가로 구득하여 지역노동시장 수준의 설명변수를 연구모형에 추가한다면,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더욱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세분화하여 분석한다면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더욱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지만, 본 논문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불완전취업, 실업, 잠재실업이 발생하는 각각의 메커니즘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저활용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분석한다면 더욱 보완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강상진. 1998. 교육 및 사회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다층 모형과 전통적 선형모형과의 비교분석 연구. *교육평가연구* 11권, 1호: 207-258.  
Kang Sanjin. 1998. Analytical comparisons between classical linear models and multilevel models as educational and social research method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11, no.1: 207-258.
2. 강순희, 안준기. 2010. 대졸자의 실업경험의 낙인효과. *한국경제연구* 28권, 2호: 201-231.  
Kang Soonhie and Ahn Junki. 2010. Stigma effect of unemployment of the college graduates. *Journal of Korean Economics Studies* 28, no.2: 201-231.
3. 김미현. 2014.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다층자료 분석에서 위계적 속성과 표본의 크기에 따른 로지스틱 모형, 프로빗 모형, 그리고 다층로지스틱 모형 간 고정효과 모수추정량의 양호도 비교.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Kim Mihyun. 2014. *Comparison of Logistic, Probit, and Multilevel*

*Logistic Models for the Analysing Multilevel Data under Different Conditions of Hierarchical Degree and Sample Size: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Ph.D. diss., Yonsei University.

4. 김용성. 2012. 고학력 청년층의 미취업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일자리 탐색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34권, 3호: 67-94.  
Kim Yongseong. 2012. Joblessness among the highly educated youth in Korea: The causes and policy implications.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4, no.3: 67-94.
5. 김을식, 김군수, 김태경, 김접산, 이수진. 2012. 한국의 고용현황과 일자리미스매치. 수원: 경기연구원.  
Gim Eulsik, Kim Gunsoo, Kim Taekyoung, Kim gumsan and Lee Sujin. 2012. *Statue of Employment and Job Mismatch in Korea*. Suwon: Gyeonggi Research Institute.
6. 김준. 2014. 노동저활용 지표 개발의 쟁점과 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Kim Jun. 2014. *Issues and Tasks of the Developing 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 Seoul: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7. 김현학, 황광명. 2014. 확장된 실업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이력현상 분석. 서울: 한국은행.  
Kim Hyunhak and Hwang Kwangmoung. 2014. *Hysteresis in Korean Labor Market with Alternative Measures of Labor Utilization*. Seoul: Bank of Korea.
8. 박강우, 이상우. 2013. 고용 및 노동시장지표의 유용성: 고용 지표와 인플레이션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은행.  
Park Kangwoo and Lee Sangwoo. 2013. *Usefulness of Employment and Labor Market Indic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Indice and Inflation*. Seoul: Bank of Korea.
9. 박기현. 2012. 실업통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Park Jihyun. 2012. *Problems and Improvement of Unemployment Statistics*. Seoul: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10. 박환보, 김성식. 2011. 개인배경, 취업준비노력, 대학서열유형이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교육사회학연구* 21권, 3호: 77-98.  
Park Hwanbo and Kim Sungsik. 2011. Individual background, employment efforts, and university selectivity on labor market outcomes of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1, no.3: 77-98.
11. 송부용, 김영순, 김기영. 2011.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요인분석: 경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경제연구* 9권, 2호:

- 287-312.
- Song Booyong, Kim Youngsoo, Kim Kiyong. 2011. A factor analysis on job mismatch of the youth, in case of Gyeongsangnam-do,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Economics* 9, no.2: 287-312.
12. 이상호. 2008. 지역노동시장권(LLMAs)의 측정과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8권, 4호: 147-182.
- Lee Sangho. 2008. A study on the measurement and applicability of local labour market areas (LLMAs) in Korea.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8, no.4: 147-182.
13. \_\_\_\_\_. 2012. 공간적 요인이 청년 대졸자의 하향취업에 미치는 효과. *공간과 사회* 22권, 2호: 38-77.
- \_\_\_\_\_. 2012. Overeducation in youth labor markets: Focusing on spatial effects. *Space & Environment* 22, no.2: 147-182.
14. 이성균. 2015.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적 미스매치: 서울과 울산의 비교. *경제와사회* 108권: 137-165.
- Lee Sungkyun. 2015. Structural mismatch at the local labor market: A comparative case study of Seoul and Ulsan. *Economy and Society* 108: 137-165.
15. 이준협, 최성근, 김동빈. 2011. '잠재성장률2%p 제고'를 위한 경제주평: 청년 체감실업률 20% 시대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경제주평* 469권: 1-19.
- Lee Junhyup, Choi Seongkeun and Kim Dongbin. 2011. Weekly economic review for 'Potential Growth Rate 2%': Characteristic and implication of the period, sensible unemployment rate 20% area. *HRI Weekly Economic Review* 469: 1-19.
16. 정상훈, 이충언. 2008. 청년층 고용현황과 시사점.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Jung Sanghoon and Lee Chungyeun. 2008. *Statue of Employment and Implication of Youth*. Seoul: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17. 정현상. 2014. 노동통계의 국제기준 개정과 고용보조지표. *노동리뷰* 117호: 42-55.
- Jung Hyunsang. 2014. The revision of international standard about labor statistics and labor sub-indicator. *Labor Review* 117: 42-55.
18. 지광수. 2005.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지역개발연구* 10권, 1호: 1229-1471.
- Chi Kwangsoo. 2005.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measures of the youth unemployment. *The Study of Regional Development* 10, no.1: 1229-1471.
19. 채구목. 2004.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56권, 3호: 159-181.
- Chai Goomook. 2004. An analysis of the realities and causes of youth and new college graduate unemploy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 no.3: 159-181.
20. 통계청. 2007. 도시권획정. 대전: 통계청.
- Statistics Korea. 2007. *Census Metropolitan Area*. Daejeon: Statistics Korea.
21. \_\_\_\_\_. 2016. 2016년 2월 고용동향. 대전: 통계청.
- \_\_\_\_\_. 2016. *Employment Trends in February 2016*. Daejeon: Statistics Korea.
22.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2 한국직업사전. 음성: 한국고용정보원.
-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2. *2012 Korea Dictionary of Occupations*. Eumseong: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3. 황수경. 2010. 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 *노동경제논집* 33권, 3호: 89-127.
- Hwang Sookyeong. 2010. Measurement of unemployment and extended unemployment indicators in Korea. *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33, no.3: 89-127.
24. \_\_\_\_\_. 2011. 실업 및 잠재실업의 측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_\_\_\_\_. 2011.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Unemployment and Hidden Unemployment*.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5. Abraham, K. G. and Wachter, M. 1987. Help-wanted advertising, job vacancies, and unemployment.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87, no.1: 207-248.
26. Bai, L. 2006. Graduate unemployment: Dilemmas and challenges in China's move to mass higher education. *The China Quarterly* 185: 128-144.
27. Baum, S., Bill, A. and Mitchell, W. 2008. Labour underutilisation in metropolitan labour markets in Australia: individual characteristics, personal circumstances and local labour markets. *Urban Studies* 45, no.5-6: 1193-1216.
28. Becker, G. S. 2009.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9. Bunel, M. and Tovar, E. 2014. Key issues in local job

- accessibility measurement: Different models mean different results. *Urban Studies* 51, no.6: 1322-1338.
30. Case, A. C. and Katz, L. F. 1991. *The Company You Keep: The Effects of Family and Neighborhood on Disadvantaged Youths*.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31. Flynn, N. T. 2003. The differential effect of labor market context on marginal employment outcomes. *Sociological Spectrum* 23, no.3: 305-330.
  32. Galster, G. C. and Killen, S. P. 1995. The geography of metropolitan opportunity: A reconnaissance and conceptual framework. *Housing Policy Debate* 6, no.1: 7-43.
  33. Ghignoni, E. 2011. Demand and supply of skilled labour and persistence of young workers' overeducation in Europe: Mediterranean countries versus the Netherlands. *Journal of Educational, Cultural and Psychological Studies* 2, no.4: 101-143.
  34. Goodman, J. F. B. 1970. The definition and analysis of local labour markets: Some empirical problem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8, no.2: 179-196.
  35. Hanson, S. and Pratt, G. 1992. Dynamic dependencies: A geographic investigation of local labor markets. *Economic Geography* 68, no.4: 373-405.
  36. Heckman, J. J. and Borjas, G. J. 1980. Does unemployment cause future unemployment? Definitions, questions and answers from a continuous time model of heterogeneity and state dependence. *Economica* 47, no.187: 247-283.
  37. Helms, G. and Cumbers, A. 2006. Regulating the new urban poor: Local labour market control in an old industrial city. *Space and Polity* 10, no.1: 67-86.
  38. Holzer, H. J. 1991. The spatial mismatch hypothesis: What has the evidence shown? *Urban Studies* 28, no.1: 105-122.
  39. Houston, D. 2005. Employability, skills mismatch and spatial mismatch in metropolitan labour markets. *Urban Studies* 42, no.2: 221-243.
  40. Hox, J. J., Moerbeek, M. and van de Schoot, R. 2010. *Multilevel Analysi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New York: Routledge.
  41. ILO. 2013. Resolu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work, employment, and labour underutilization. In Proceedings of *The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October 6-15 1998. Geneva, Switzerland.
  42. Jauhiainen, S. 2006. Regional differences in overeducation. In Proceedings of *The 46th Congress of the Europ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August 30-September 3. Dortmund, Germany.
  43. Jonas, A. E. 1996. Local labour control regimes: Uneven development and the social regulation of production. *Regional Studies* 30, no.4: 323-338.
  44. Khattab, N. 2006. Ethnic and regional determinants of unemployment in the Israeli labour market: A multilevel model. *Regional Studies* 40, no.1: 93-105.
  45. McGuinness, S. 2006. Overeducation in the labour market. *Journal of Economic Surveys* 20, no.3: 387-418.
  46. McQuaid, R. W. and Lindsay, C. 2005. The concept of employability. *Urban Studies* 42, no.2: 197-219.
  47. McQuaid, R. W., Green, A. and Danson, M. 2005. Introducing employability. *Urban Studies* 42, no.2: 191-195.
  48. Mitchell, W. F. and Carlson, E. 2000. *Beyond the Unemployment Rate: Labour Underutilisation and Underemployment in Australia and the US*. Newcastle: Centre of Full Employment and Equity Working Paper, The University of Newcastle.
  49. Nunley, J. M., Pugh, A., Romero, N. and Seals, R. A. 2014. *Unemployment, Underemployment,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Results from a Correspondence Audit of the Labor Market for College Graduates*. Auburn: Auburn University.
  50. OECD. 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51. Raudenbush, S. W. and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52. Simpson, W. 1992. *Urban Structure and the Labour Market: Worker Mobility, Commuting, and Underemployment in Cities*. Oxford: Clarendon Press.
  53. Smith, V. 2010. Enhancing employability: Human, cultural, and social capital in an era of turbulent unpredictability. *Human Relations* 63, no.2: 279-300.
  54. Sum, A. and Khatiwada, I. 2010. The nation's underemployed in the 'Great Recession' of 2007-09. *Monthly Labor Review* 133, no.11: 3-15.
  55. Van Ham, M., Mulder, C. H. and Hooimeijer, P. 2001. Local underemployment and the discouraged worker effect. *Urban Studies* 38, no.10: 1733-1751.

56. Wooden, M. 1993. Underutilisation in Australia. *Labour Economics and Productivity* 5, no.2: 95-110.
5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SurvSearchByDate.do?extcTypeDivCD=E&curMenuNo=UI\\_POR\\_P1070](https://mdis.kostat.go.kr/extract/extSurvSearchByDate.do?extcTypeDivCD=E&curMenuNo=UI_POR_P1070).  
 Statistics Korea. 2013.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SurvSearchByDate.do?extcTypeDivCD=E&curMenuNo=UI\\_POR\\_P1070](https://mdis.kostat.go.kr/extract/extSurvSearchByDate.do?extcTypeDivCD=E&curMenuNo=UI_POR_P1070).
58. \_\_\_\_\_. 지역별고용조사.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SurvSearchByDate.do?extcTypeDivCD=E&curMenuNo=UI\\_POR\\_P1070](https://mdis.kostat.go.kr/extract/extSurvSearchByDate.do?extcTypeDivCD=E&curMenuNo=UI_POR_P1070).  
 \_\_\_\_\_. Regional Employment Survey.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SurvSearchByDate.do?extcTypeDivCD=E&curMenuNo=UI\\_POR\\_P1070](https://mdis.kostat.go.kr/extract/extSurvSearchByDate.do?extcTypeDivCD=E&curMenuNo=UI_POR_P1070).
59. 한국고용정보원. 2010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http://survey.keis.or.kr/goms/gomsdownload/List.jsp>.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0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http://survey.keis.or.kr/goms/gomsdownload/List.jsp>.

- 논문 접수일: 2016. 9. 30
- 심사 시작일: 2016. 10. 19
- 심사 완료일: 2016. 11. 2

## 요약

주제어: 청년 대졸자, 노동저활용, 지역노동시장, 다층로지스틱모형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지역노동시장권을 대상으로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과 지역노동시장 수준의 요인들을 도출하고, 각 요인이 지니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노동력 활용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노동저활용 개념을 사용하여 청년 대졸자의 노동력 활용을 정의하였다. 또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청년 대졸자의 노동저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요인과 지역노동시장 특성 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의 효과를 다층로지스틱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개인 수준의 설명변수를 구성하기 위한 자료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12 한국직업사건과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지역노동시장 수준 변수를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별, 전공 계열, 미취업 기간, 혼인 여부, 가구주 여부 등 개인 수준에서 측정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각 청년 대졸자가 소속된 지역노동시장의 학력과잉 비율과 노동 수요 자급률 등 지역노동시장 수준의 고용환경 요인들 역시 노동저활용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설명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노동저활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업 정보와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개인 수준에서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노동시장 수준의 고용정책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단순히 지역노동시장 내 일자리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한 접근보다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용창출 정책의 수립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